

창조경제 시대의 지역대학 발전방향과 과제

정상철 | 충남대학교 총장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의 3대 키워드 중 하나로 경제부흥을 제시하고, 창조경제 달성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놓은 바 있다. 창조경제의 관건은 고급인력과 산업발전을 적절히 연결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집약적인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있다. '나라의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며,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이 실현되어 대학의 창의적 인재육성과 긴밀한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생태계의 구축, 신산업 육성, 새로운 고용창출 등 다각도에서 소정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비슷한 주장을 2011년 뉴욕시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그의 시정연설에서 피력한 바 있다. "좋은 기업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몰리는 시대는 지났다. 최고 수준의 인재가 양성되는 도시에 가장 우수한 기업이 만들어진다."라고 그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일명, '게임 체인지(Game Change)'라 불리는 응용과학 뉴욕시(Applied Science NYC)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경쟁력을 지닌 도시, 세계인이 동경하는 금융, 비즈니스, 패션 등의 선도시인 뉴욕시마저 인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2년 말, 코넬대학교와 이스라엘 테크니온대학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뉴욕의 금싸라기 땅인 루즈벨트 섬의 18만 5,000 제곱미터의 부지를 99년 간 무상대여하고, 1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응용과학 뉴욕시 프로젝트의 장기적 목표는 지역의 고급인력육성 기반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키고, 이들의 혁신능력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분야에 6만 개의 새로운 히든챔피언(기술집약적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창의적 인재육성, 융합학문 발전, 산학협력과 졸업생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학의 여건은 여러모로 열악하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우수학생을 끌어들이는 데 어려움이 크다. 그나마 육성된 졸업생들은 대학원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버리는 실정이다. 대기업을 선호해서 지역을 떠나는 졸업생들을 지역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산업에 붙들어 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었으나 수도권 집중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지녀야 할 수도권의 성장 기반을 무조건 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균형 있는 시각의 정책 패러다임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발전의 바탕이 되는 인재육성의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역할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지역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지역대학에서 육성되고, 지역산업에 착근하여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인문학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융합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능력배양,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과 지원, 이를 바탕으로 한 창업활동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성공한 강소기업의 리더들은 지역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에게도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이 최상의 목표였던 학생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학생의 잠재력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을 지역대학을 시범무대로 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으로는 고급인력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창조경제 구축의 기반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취업문제의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까지 제한된 취업문을 각 대학이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창조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대학의 연구실은 단순한 R&D의 장이 아니라 지역산업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대학은 교수, 학생들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재기반의 발전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좋은 기업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재가 양성되는 곳에 기업이 만들어지는 시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며 대학의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펼쳐 나아가야겠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2년 5월 충남대학교 경성대학 전임강사로 교수생활을 시작하여 2012년 1월 20일까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충남대학교 전자계산소장, 충남대학교 경성대학장,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충남대학교 기획처장,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객원 교수, 중국 동북재경대학 객원 교수,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회장, 한국정보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대전도시공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충남대학교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경영정보시스템(공저)』, 『품질관리(공저)』,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공저)』, 『서비스시스템 운영관리(공저)』 등과 『통계적 품질관리기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평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류정보화가 물류성과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외 다수가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시스템의 설계·개발과 운영, 서비스시스템 품질관리이다.